



‘12.29여객기참사 희생자들을 추모하며’ 17일 오후 서울역의도국회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24회 국회(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12.29여객기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안(대안)에 대한 표결전의원들이묵념을하고있다. /뉴스시스

광장서 모인 민주주의, 5·18 답아... ‘아! 오월, 다시만난 오월’

5·18민주화운동 45주기를 맞아 기획된 민간주도 5·18기념행사가 12·3 비상계엄 정국 타파를 외친 광장에서 다시한번 시민들과 함께한다.

17일 제45주기 5·18민주화운동기념행사위원회(행사위)에 따르면 5월 한 달 동안 광주 곳곳에서 행사위가 주관하거나 행사 위와 협력·공모를 통해 진행되는 다양한 5·18 계기 행사가 열린다.

‘아! 오월, 다시만난 오월’을 대주제로 열리는 행사들은 12·3 비상계엄 이후 광장에서 모였던 민주주의 열망을 5·18 광주가 이어가겠다는 취지를 담았다.

엄중한 탄핵 정국 속에서도 응원봉을 흔들며 민주주의를 열망한 시민들의 바람을 민주주의의 씨앗인 5·18과 잇겠다는 다짐이다.

올해 행사에는 시민 공모에 참여한 42개 단체와 전국 광역시·도 14개 지역 행사위가 추진하는 사업이 동시다발적으로 펼쳐진다.

5·18 45주기 민간주도 행사 윤곽 공개 ‘소년이 온다’ 모티브 체험 활동 등 다채 전야제, 금남로 4가로 옮겨 시민 만남도

먼저 전통적으로 5·18 하루 전날인 17일 치러지는 오월시민난장, 민주평화대행진, 전야 행사 등이 광장에서 시민들과 어우러진다.

시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오월시민난장은 ‘오월광주, 민주주의대축제’를 주제로 체험마당과 거리무대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마련됐다. 지역 극단이 참여해 5·18을 되돌아보는 거리극을 펼치고 국가폭력·재난참사 희생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지는 합창단의 공연이 진행된다.

노벨문학상 수상자 한강 작가의 작품 ‘소년이 온다’ 속 등장인물들의 시점에서 5·18을 재현하는 ‘소년의 기억’ 행사도 마련됐다.

시민난장 이후에는 동구 수창초등학교에서 시작해 금남로 전야제 무대로 향하는 ‘민주평화대행진’을 열어 1980년 5월 당시 광주 시민들이 벌였던 민족민주화쟁회를 재현한다. 수백여 명의 시민들이 행진하며 민주주의 완성을 거듭 촉구하는 메시지를 다양한 방식으로 전한다.

민간행사의 꽃인 전야제가 열리는 무대는 그간 진행돼온 전일빌딩245 앞 삼거리에서 금남로 4가역 교차로로 옮겨진다.

교차로 한복판에 무대를 설치, 일방적 무대가 아닌 4면을 활용해 중심으로 모여 서로를 마주보는 시민들의 모습을 담는다. 환영의 대축제, 민주주의 대축제, 빛의 대축제 등 3부로 꾸러진 전야제는 광주시

민과 예술인 단체들이 총출동한다. 오월 어머니들의 ‘님을 위한 행진곡’ 합창과 ‘맨발의 보컬리스트’ 가수 이은미의 공연도 함께한다. 전야제는 행사에 참여한 전원이 옛 전남도청으로 행진하는 퍼포먼스로 마무리한다.

이밖에 5·18 당일 오후에는 5·18민주광장에 특설무대를 설치하고 민주대성회를 연다. 행사는 1980년 5월23일부터 나흘간 진행된 ‘민주수호범시민광기대회’를 재현, 각계각층 시민들의 의견수렴·자유 발언 공간을 마련한다.

행사위 관계자는 “올해 5월은 오월정신이 전국화, 세계화되는 개화기다. 오월 광주를 찾는 시민들이 해방광주가 꿈꿨던 대동세상을 특별한 경험으로 느낄 수 있도록 하겠다”며 “1980년 대동세상을 뛰어넘어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의 가능성과 표상을 보여주는 민주주의의 대축제로 기념행사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박도일 기자

“물러설 곳 없다”... 광주·전남권대, 글로컬30 마지막 승부

광주·전남 주요 대학들이 글로컬대학 30 사업 선정에 사활을 걸고 있다. 각 대학들은 사업 마지막 해인 점을 고려해 자신들만의 특색을 담은 마지막 승부수를 준비하는 모습이다.

17일 지역 대학가에 따르면 교육부는 내달 2일까지 글로컬대학30 3년차 사업 신청서를 받는다.

글로컬대학30은 세계적 수준의 지방대학 육성을 위한 고강도 혁신을 위해 정부가 추진하는 사업이다. 수도권 지역의 대학을 제외한 지역 대학 30곳을 지정해 5년간 최대 국비 1000억원을 지원한다. 단일 대학 지원 금액 기준 교육부 역대 최대 규모 사업으로 꼽혀 대학들의 참여 열기가 뜨겁다.

교육부는 2023년과 지난해 각각 10개 대학을 선정했다. 2023년 광주와 전남에서는 유일하게 순천대학교가, 지난해에는 광주보건대연합(조광역유형)과 국립목포대가 글로컬대학30에 선정됐다.

교육부는 사업 마지막 해인 올해도 10개 이내 대학을 선정할 계획이다. 교육부는 내달 중 예비지정 대학을 선정한

연거푸 고배 전남대, 총장 관심 보고서 정리 중
조선대, 학교법인내 대학과 통합으로 전략 수정
호남대·광주대는 ‘맞손’... 18일 양 대학 협약 체결
지난해 1차 관문 통과 동신대연합, 보고서 ‘보완’

뒤 평가를 거쳐 9월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사업 첫째 광주지역 대학 중 유일하게 예비지정(단독유형) 대학에 이름을 올렸던 전남대는 본지정 평가에서 연거푸 고배를 마시며 지역 거점국립대로서의 체면을 구겼다. 전남대는 신입 이근배 총장의 관심 속 최종 보고서를 다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광주대, 광주여자대, 남부대, 송원대 등 지역 4개 대학과 연합, 신청서를 제출했다 탈락한 조선대는 올해 사업 전략을 수정했다. 타 대학과의 연합이 아닌 학교법인 내 대학들과의 통합을 선택한 것이다.

조선대는 지난 15일 조선이공대·조선간호대와 ‘총괄 총장제’ 협약식을 체결

했다. 단일 거버넌스 구축을 토대로 대학 비전인 ‘웰에이징 아시아(Asia) 넘버원’을 실현하겠다는 구상이다.

지역 내 여러 여건을 살펴 대학이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를 집중 공략해 지역발전과 지역 인재 양성을 선도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지난해 단독으로 도전장을 내밀었던 호남대는 올해 다른 방식의 전략을 선택했다. 광주대와의 연합을 선택한 것. 두 대학은 18일 해당 협약을 체결한다. 각 대학의 특징점을 살린 각각의 보고서를 작성한 뒤 이를 합쳐 최종 신청서를 작성할 것으로 보인다.

조광대·목포과학대와 연합해 지난해 1차 관문을 통과했던 동신대는 올해도 같은 체제로 경쟁에 뛰어들다. 예비대학 지위 유지와 함께 본선으로 직행하는 동

2024년 글로컬대학 10곳 지정	
부산	● 국립 일반대 ● 사립 일반대 ● 전문대 - 연합, + 통합
대구	● 경북대
충남	● 건양대
전북	● 원광대 + 원광보건대
전남	● 목포대
경북	● 한동대 ● 대구한의대
경남	● 인제대 ● 창원대 + 도림거창대 + 도림해대 + 승강기대
조광역	● 대구보건대 - 광주보건대 - 대전보건대

신대연합은 각 대학의 경쟁력 제고 방안을 위주로 관련 서류를 수정·보완 중이다.

모 대학 관계자는 “더 이상 물러설 곳이 없다”는 각오와 함께 사업 선정을 위한 제반 사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전광훈 기자

곡성군

장미로 물드는 하루

All Day Rose

2025. 5. 16^금 - 25^일 곡성섬진강기차마을

제15회 곡성세계장미축제